모습,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끄달리지 마십시오

☞ 19면에서 계속

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수시로 나투면서 누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꾸면서 만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천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은 일분일초도 어기지 않고 내 마음 내는 대로 그대로 그대로인 것을….

없을 때는 부처요, 한생각 내서 모습을 만 개를, 천 개를 만들었을 때는 바로 화신이요, 바로 법신이다 이거야. 그러니 그 법신이 있는데 어찌 보현, 문수가 없겠는가. 자재력이 있다면 거기에는 다 십대 제자가 있고, 십대 제자만 있는 게 아니야. 모두가 그것도 이름이고, 그렇게 광대무변한 그 마음 하나가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습이 돼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해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어.

또 그렇게 됐을 때에 사람사람이 이 세상, 우리 이 지구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상하를 막론해 놓고 저 벌레에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살아나가는 그 생존력들을 볼 때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큼 치열하게 지금 찢기고 찢고 그러는지…. 찢는 그 생물은 찢기만 하고 사는 건 아니야. 찢어 먹기만 하는 건 아니야. 그 밑으로 가면 또 찢어 먹혀. 찢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찢어서 주기도 한다 이거야. 자기 몸을 또 찢어서 주기도 해.

그러니 비교해서 얘기를 한 것이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찢어 먹을 때하고 찢어 먹힐 때하고 두 가지를 놓고 반복되는데, 찢어 먹히면 찢어 먹고, 찢어 먹었다 하면 찢어 먹히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게 업보며, 어떤 게 선한 일이라고 보겠습니까? 또 부처다 중생이다 할 때 중생이 이 우리 몸뚱이 속에서 응시 안 하고 있다면 부처라는 그 선장이 나오질 않아. 사람이라는 이 자체가 생기질 못해. 여기에는 갖은 각색의 생명들과 모습들이 갖은 각색의 모습들을 해 가지고 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처라는 그 한마디가 나온 것이 사람이라는 한마디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사람이 되고자 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된다면 어디까지나 남들과 무수히 같이 그냥 걸어가면서 항상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무주상보시의 마음을 내 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한 가지만 알았지 둘도 몰라. 모습을 가지고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보시가 아니다 이거야. 또 모습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줄 때에 욕심 없이 내놓는 것만이 무주상이 아냐. 그것은 한계가 있어, 또. 써 버리면 그만인 그 한계가 있어. 그러나 마음이라는, 이 진실된 마음의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영원한 거야. 영원히 속삭일 수 있고 영원히 그것은 찰나찰나 옮겨 가면서 모두가 나 아님이 없이 나투어 가면서 영원한 거라.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꿔 가면서 나투면서 항상 같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어저께도 내가 가면서 이런 슬픈, 슬픈 거보다도…. 미생물에서부터뿐만 아니지마는 아래서부터, 중에서부터 상으로까지 수없이 엎었다 젖혔다 하는 이 되풀이에서 누가 업보가 있다고 할 거며, 누가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가 중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가 부처라고 할 수 있겠나. 모두가 이렇게 아픈 것을 어떻게, 이 한 가슴 속에 스며드는 이 째릿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단지 그렇다. 본래 있는 한 눈가에는 이슬만이 오고 가는구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 한마음은 어딘가가 자기라는 걸 세울 게 없는 것이 뚜렷하니 때로는 벌레하고도 밤중에 같이 울어 줄 수 있고 귀뚜라미하고도 같이 울어 줄 수 있고, 여러분이 울면 같이 울어 줄 수 있고, 가깝다 멀다 탓 안 하고 가 줄 수 있고 와 줄 수 있고, 오고 감이 없이 그렇게…, 바로 나인지라.

그런 것은 아까 나무 얘기 했듯 그렇게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광대무변한 그 마음의 법칙이, 이 법칙이라는 이 자체도 이름일 뿐이지, 법칙 없는 법칙입니다. 인간의 미가 그 한마음에서 스스로 생명수처럼 흘러져 나올 때, 여러분의 한마음이, 이슬이 같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핏방울처럼 눈가에서는 눈물이 뚝 떨어지게 돼 있죠. 이것을 어느 누구가, 어느 누구가 이것을, 이 한 방울의 우주의 근본을 어느 누구가 짐작이나 하랴. 이 한 방울의 이슬은 수많은 사람의 이슬이거늘 어떠한 것을 이슬이 아니라고 하고 이슬이라고 하고 이걸 탓하랴.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는 것을. 금방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것을.

금방 낮이 됐다가 금방 밤이 되는 것을 밤 낮이라고 둘로 나누어야 할까? 아니다! 잠시 잠깐 밤이 있고 잠시 잠깐 낮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우리 모습도 아니요, 이름도 아니다. 단지 그냥 본래 있는 한 눈가의 이슬방울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째릿째릿한 아픔에 의해서, 본래 아픈 것은 없건마는, 본래 아픈 것이 있기에 본래 아픈 것이 없다고 한 것도 이름이다. 우리가 다 같이 웃을 때에 같이 웃고 울 때에 같이 울었던 그 시절이 끊임없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이 한마음 속에서 생존의 문제만 아니라, 생존 경쟁을 해 가면서 과학이니 문학이니 또는 문화니 역사니 공업이니 또 정치니,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붙어 돌아가는 이 하고많은 맹랑한 일들이 어디에서 다 흘러져 나오나?

단,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승려들도 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중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려고 해야 진짜 위아래가 없이 중도의 그 지혜를 무기 삼아서 일체에 모두 한마음으로 고정된 게 없이 굴리면서 자재로운 그런 이슬도 같이할 수 있지 않은가. 도대체 중이 뭐며, 또 속인이 뭐며 부처가 뭐며, 뭐가 그렇게도 많이 이름이 붙어 있나? 사람이 질서를 지키고 살려니까 그 이름이 붙은 것뿐이고, 또 생존해서 살려니까 그 모습을 차원대로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려 줄 것은 이 몸 하나로써는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서.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한마음으로 이 모두를 지혜롭게 굴려 나갈 수 있다면, 보이는 세상 안 보이는 세상을 휘어잡아서, 보이는 물질 보이지 않는 물질, 보이는 마음 안 보이는 마음을 다 한데 합쳐서 나 아님이 없이,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없이, 높고 낮음이 없이, 너 나가 없이, 부처 중생도 없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루어 나가는, 한 이슬방울 오락가락하듯이 같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살기에 급급하지 않을 겁니다.

> **어떠한 아픔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에**
> **만약에 불망치가 떨어진다 해도**
> **내가 불망치가 돼 준다면 그 아픈 걸 알아서**
> **그 불망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 씨들이 그래서 바람 따라서 물 따라 가다 보니까 정착이 되는 것은 물에 밀려서 흙에 닿으니까 정착이 된 거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섰던 거고, 나무가 섰기 때문에 모든 날아다니는 새들도 벌레들도 살 집을 찾는 거죠. 나무도 그렇게 바람 따라 다니면서도 생존의 경쟁을 하는 그 모든 날아다니는 거와 기어 다니는 것들의 집이 돼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나무가 되는, 그러한 이치도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동에서 서로, 바람에 서쪽으로 날려서 서쪽에 가서 정착을 하는 씨앗들도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서 정착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사방에 문이 없고 사방에 정착할 곳이 따로 없고 모두가 다, 사방이 터져서 모두가 내 집 아닌 집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모든 걸 착을 떠나서, 우리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오늘 아침에도 첫 번에 남편을 만났고 그다음에 부모를, 자식을 만났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허둥지둥 허둥지둥, 이것 저것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없으리만큼 바쁘게 돌아치니,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고정됨이 아니라. 뿌리 없는 나무처럼. 뿌리 없는 마음처럼. 고정된 마음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이 여기서 천 리를 간들 못 가리까. 이 세상의 일체 만물과 만생을 같이 하려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그렇게 갸륵한 거라.

그러니 어질고 착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혜를 넓혀서 그걸 무기 삼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이슬이 돼 준다면, 우주 세계의 모두가, 전체 저 은하계로부터 모든 혹성들의 어떠한 생명이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렇게 모두 돌고 도는 그 마음들이 한마음이 돼서, 어떠한 아픔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만약에 불망치가 떨어진다 해도 바로 내가 불망치가 돼 준다면 그 아픈 걸 알아서 불망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모두가, 아까 한 이슬로 표현을 했지만, 본래 있는 거지만 본래 있는 눈가의 그 눈물은 항시 이슬과 같이 오락가락하는 그 마음이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역경을 헤쳐 가면서 살아나가는 데에 모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습,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끄달리지 말라 이 소립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돈을 영원히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요, 몸도 영원히 당신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식도 영원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요, 부모를 영원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까 나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면, 바람 따라 물 따라 정착을 하면 그냥 사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바람 따라 물 따라 또 흩어지면 또 사는 것이고, 또 흩어지면 또다시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디디면서 나투면서, 변질돼 가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화가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영원히 같이 걸어가고 있죠. (녹음 안됨)

병고에 휘달리니까 내가 병이 낫고자 해서 온 것입니까? 가난해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살려고 온 것입니까? 그 여러 가지를 다 한생각에 여여하게 걸림 없이 모든 것을 녹여 버리고, 서서히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정착할 곳이 따로 없이 흘러 도는 것처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스스로 바로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죽일 사람도 없고 죽을 사람도 없고, 욕먹을 사람도 없고 욕할 사람도 없고, 가난이 붙을 데가 없고 붙일 사람도 없고, 이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5월 22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